

보도	2024.4.3.(수) 10:15	배포	2024.4.2.(화)		
담당부서	기획조정국 디지털전환혁신팀	책임자	국 장	김성욱	(02-3145-5900)
		담당자	팀 장	채영현	(02-3145-5890)

금융감독원 - 네이버,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-

I. 업무협약 개요

-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네이버(대표 최수연)와 '24.4.3.(수) 금융감독원 본원(서울 여의도)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함
 - 최근 인공지능(AI),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바,
 - 금융감독원과 네이버는 급격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
-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,
 -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

II. 기관별 발언요지

-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“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, 생성형 AI 기술은 산업 혁명 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.”고 밝히면서
 - “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,
 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의 IT 기술력을 활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·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음
-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“팀네이버의 AI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, 특히 금융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.”고 언급하면서,
 - 금융 업계와 진행해온 다양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, 금융감독원의 업무 혁신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”이라고 말했음

III. 향후계획

- 금융감독원과 네이버는 금융감독 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임